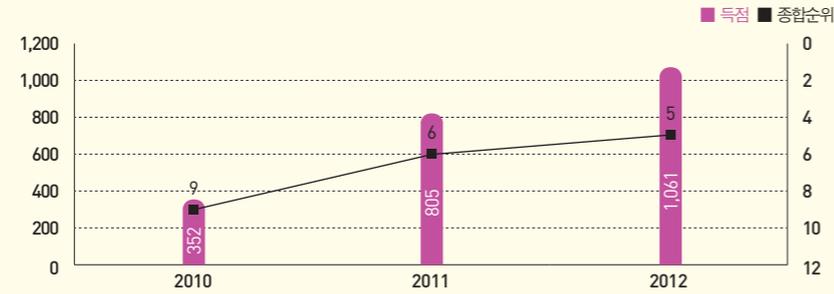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3년)

연도	종합순위 (득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10	9(352)	0/0/0	-	-	5(352)
2011	6(805)	0/0/1	3(805)	-	0(0)
2012	5(1,061)	0/1/0	9(0)	-	2(1,061)



05 부산 테니스 협회

현직 회장
김영철
 영진기계 대표
 -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테니스연합회 회장
 - (사)한국아마추어 테니스협회(KATO) 회장
 - 부산광역시 테니스연합 제2대~(현)4대 회장
 - 테니스를 사랑하는 모임 9대 회장 역임
 - 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에 테니스의 연식종목인 정구가 먼저 보급됐으며, 경식종목인 테니스는 뒤늦게 보급됐다. 부산에서는 1953년 대선주조 정구장에서 김교성(금성사 공장장), 전계원(전 대한테니스협회 전무), 최경록(2관구 사령관), 최형집(전 대한테니스협회 이사) 등 정구를 즐기던 몇몇 인사들이 세계적인 추세였던 테니스를 하자는 뜻을 모아 시작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1956년에 구덕테니스장(현재 구덕실내체육관 자리)에서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회가 열렸으며, 1958년에는 동래고가 처음으로 테니스부를 창단했다. 이듬해인 1959년 제4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김두환(전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우승을 하고, 동래고 외에도 부산여고와 남성여고, 경남고, 부산공고, 부산상고, 부산대에서도 1~3명 정도의 선수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부산의 학생테니스는 일약 발전의 조짐을 보였으나, 후속 선수 발굴에 실패하면서 추가적인 팀 창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1963년 부산의 정부직할시 승격, 부산시체육회의 설립 직후인 1964년과 1965년 이광휘(전 서울은행 지점장), 박석규(전 국가대표), 양해식(현 부산테니스협회) 등이 주축이 된 남고부가 전국체

주요 연표

일자	내용
1953.03.01	부산에서 최초로 테니스를 시작
1958.03.01	부산 최초 남자고등부 동래고 테니스팀 창단
1964.03.01	부산·대구 도시대항전(학생 및 일반부) 개최
1965.03.01	남중부 동래중 테니스팀 창단
1968.03.01	브니엘 여중고 테니스팀 창단
1972.03.01	동래여중·고 테니스팀 창단
1972.06.01	테니스장 삼화 13면, 대연 16면 사설코트 건설
1973.03.01	남고부 경남공고 테니스팀 창단
1975.04.21	전국 종별 테니스대회 부산 개최
1976.02.01	남자일반부 (주)삼화 실업팀 창단
1978.03.01	남고부 부산동고 테니스팀 창단
1982.03.01	건설사와의 자매결연 통해 우수선수 장학사업(매년 1500만 원) 전개
1983.12.01	여자일반부 대양고무 실업팀 창단
1990.03.01	여자고등부 동호여상 테니스팀 창단
1991.03.01	여자일반부 금정구청 실업팀 창단
1991.05.12	부산·후쿠오카 정규 교류전(남녀 각 20명) 개최
1992.03.01	남자고등부 동명공고 테니스팀 창단
1995.01.01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테니스 장학회 설립
1998.03.01	남자일반부 삼성증권 부산팀으로 영입
1999.04.26	부산오픈 한국 남자테니스대회 개최
2003.03.01	여자고등부 남산고 테니스팀 창단
2003.06.07	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개최
2008.03.01	부산테니스협회 유소년 장학사업(매년 1000만 원) 전개
2012.03.01	여자대학부 영산대테니스팀 창단

육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1968년 브니엘 중·고등학교가 테니스부를 창단하면서 당시 박성기 교장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973년에는 최경미(전 국가대표), 한명자(전 국가대표), 황연희(전 국가대표), 최영미에 의해 제54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1975년과 1976년에도 박혜련(전 국가대표) 김수옥(전 국가대표), 조은옥(전 국가대표), 하영옥 등에 의해 전국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후에도 박말심 등의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해 테니스 명문학교로 명성을 떨쳤으며 한국의 여자 테니스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1964년에는 대구와 정기전을 갖기로 하고 양 도시 총 8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홈앤드어웨이(Home and Away)로 개최되는 한국 유일의 도시대항전인 이 대회는 2011년 제50회를 성대히 거행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70년에는 최철룡(전 산업은행 선수), 김석환(한국체대 교수), 정민철(전 대한테니스협회 전무), 한창선(전 건국대 감독) 등을 주축으로 전국체육대회 남고부를 다시 한 번 제패했으며, 1972년에는 동래여자 중·고 테니스부를 창단,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브니엘중·고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며 발전을 거듭했다. 이후 시내 곳곳에 테니스장이 늘어나면서 직장과 클럽테니스도 활성화됐다. 아울러 그 해에는 당시 조선견직 사장으로 있던 김영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삼화 레오파드 13면, 대연 레오파드 16면 등 경기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부산의 테니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1973년 클럽대회를 창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2년에는 동양개발 박우영 회장의 역점 사업으로 부산의 건설사와 우수선수와의 자매결연을 유도해 1987년까지 연 평균 약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양양과 학생테니스 육성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1991년부터는 부산테니스협회와 일본 후쿠오카테니스협회의 정기전이 시작됐다. 매년 남녀 각 20명의 선수단이 양국을 교대로 방문해 양 국가의 문화교류와 테니스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2년 제23회 정기전을 부산에서 개최했다.

부산테니스협회는 1995년 기금 1억 3500만 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부산테니스장학회를 설립했다. 기금의 운영수익금을 전액 지역학교 팀에 지원함으로써 부산의 테니스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에는 부산오픈남자테니스대회를 창설했다.

첫 대회에는 단식 16명, 복식 8조가 초청됐으며 부산테니스협회는 입상선수들에 대해 총 13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오픈남자테니스대회는 2003년 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대회로 승격해 2012년 총 상금 7만 5000달러의 챌린저대회로 성장했다. 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대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전국에 회원을 두고 있으며 홈페이지(www.busanopen.org)를 통해 게재되는 각종 테니스 정보는 한국 최고의 열람을 자랑한다.

처음에는 부산 테니스인들이 주축이 된 순수 테니스인들의 사업이었으나, 2004년부터 '부산'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다는 의미로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공동 개최로 전환했다. 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대회는 부산테니스의 보급과 발전은 물론 국제적으로 부산이라는 도시의 홍보에 크게 기여하며 낱알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유소년들의 저변확대가 테니스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취지아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연령별 대회를 개최해 매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정석영(현 국가대표), 남지성(현 국가대표), 김형돈, 김지하, 손지훈 등이 주축이 된 부산의 동래고가 전국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현재 부산테니스협회에는 초·중·고·대학 및 실업 총 16개 팀에 74명의 선수가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역대 회장

제1대	이병숙	1963.02.01~1964.12.31
제2대	허준구	1965.01.01~1968.12.31
제3대	박성기	1969.01.01~1970.12.31
제4대	김영구	1971.01.01~1975.12.31
제5대	김영주	1976.01.01~1976.12.31
제6대	박찬종	1977.01.01~1977.12.31
제7대	김봉희	1978.01.01~1980.12.31
제8대	백충기	1981.01.01~1981.12.31
제9대	박우영	1982.01.01~1988.12.31
제10대	전정구	1989.01.01~1992.12.31
제11대	서국웅	1993.01.01~2000.12.31
제12대	김태룡	2001.01.01~2004.12.31
제13대	김태룡	2005.01.01~2006.11.12
제14대	양희우	2006.11.13~2007.12.31
제15대	양희우	2008.01.01~2012.12.31
제16대	김영철	2013.01.01~현재

현직 회장 및 임원

협회 직위	이름	소속
회장	김영철	사업
	서국웅	교수
고문	김태룡	
	양희우	
	박형준	
자문	황성철	
	최정식	
감사	이정웅	교사
	허선택	사업
전문위원	이택희	교사
	김찬석	언론인
	조진현	교사
	신주식	사업
부회장	하국봉	의사
	김천은	의사
	이상훈	의사
	정춘식	사업
	이종윤	건축사
	손병창	사업
	조진구	

협회 직위	이름	소속
부회장	허영선	
	김영수	
이사	정부영	공무원
	김문찬	사업
	곽두진	교수
	배재권	은행
	민재석	사업
	김현관	사업
	김영수	사업
	이택기	테니스숍
	전시우	테니스숍
	이상준	
	이현숙	
	박정형	
전무이사	함석현	지도자
총무이사	이황희	지도자
경기위원장	이복용	감독
경기부장	김문호	지도자
심판부장	이진혁	지도자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23/96	8/33	7/22	2/25	3/8	3/8
2008	18/74	7/24	3/15	2/18	4/10	2/7
2009	19/74	7/27	3/13	3/17	4/10	2/7
2010	19/67	11/31	4/15	2/14	1/4	1/3
2011	20/62	10/24	4/12	3/15	1/5	2/6
2012	19/72	9/28	4/20	2/9	2/9	2/6

국제대회 성적

연도	대회명	세부종목(체급)	순위	수상자	
				성명	소속
1973	전일본주니어선수권대회(18세부)	여고부	우승	최경미	브니엘고
1981	대만국제주니어선수권대회(18세부)	남고부	3위	구지열	동래고
1989	미국오렌지블주니어대회(16세부)	여고부	우승	박성희	동호여상
1993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18세부)	여고부	우승	최주연	동래여고
1995	홍콩국제주니어선수권대회(18세부)	남고부	우승	김동현	동래고
2009	호주오픈국제주니어대회	남고부	8강	정석영	동래고
2010	태국국제씨키트대회	남고부	준우승	정석영	동래고
2012	국제주니어선수권김천대회(16세부)	여중부	준우승	정다빈	구서여중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3년)

연도	종합순위(특점)	획득메달(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10	10(963)	2/0/0	3(700)	9(132)	10(132)
2011	8(794)	1/0/0	1(738)	11(56)	0(0)
2012	8(794)	1/0/0	1(738)	11(56)	0(0)

